

## 한 · 중 · 일 전통 색채 체계 표준색 특성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Standard Color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hina, and Japan Traditional Color System

주 저 자 : 서건연 (Shu, Jian Yan)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 신 저 자 : 이성원 (Lee, Sung Won)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ascada@deu.ac.kr

## Abstract

Aiming at researching for the relations among the three traditional color systems of Korea, China and Japan, including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rms of color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connections between their theory formations. Creating color samples based on standard color values of traditional color system, then analyzing its tone, brightness and saturation by NCS to gain color characteristics as well as colo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traditional color system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at the same time, to compare their theory formation. Regarding tone, the total percentage of red, yellow, blue and green are all above 15% in three countries. The main color in Korea is red, while in China and Japan the main color is yellow. Concerning brightness, Medium-brightness color is mainstream in Korea, while in China and Japan, high-brightness color is dominant. In terms of saturation, In Korea, high saturation colors are prevailing but in China, medium saturation color is dominant and low saturation color is more prevalent in Japan. Their theory formation all affected by Chinese Yin and Yang and the theory of five elements. These three countries all identify different stratum by limiting the usage of colors on their costume, but varied color characteristics are developed in practice appli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iversity of traditional Asian colors wa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standard colors of traditional color systems.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promote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olors, and to provide new ideas and design patterns for research on color culture between countries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various countries.

## Keyword

Korea, China and Japan, Traditional Standard Color, Color Comparison, Color Characteristics

---

## 요약

한·중·일 세 나라의 전통 색채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각 나라 전통 색채 이론 형성 간의 연관성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전통 색채의 색값을 추출하여 NCS 시스템에 도입해 색채의 색상, 명도, 채도를 비교 한·중·일 세 나라의 전통 색채 체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통 색채 이론 형성을 비교 하였다. 색상의 경우 빨강 색조, 노랑 색조, 파랑 색조와 녹색조는 세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15% 이상이 었다. 한국의 주된 색조는 빨강 색조이고 중국과 일본의 주된 색조는 노랑 색조이다. 명도의 경우, 한국은 중간 명도 색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국과 일본은 고명도 색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채도의 경우, 한국은 고채도 색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국에서는 중채도 색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본에서는 저 채도 색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들 전통 색채 이론의 형성은 모두 중국의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았고 세 나라는 모두 등급별 복장 색상 사용의 제한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지만, 실제 응용에서 서로 다른 색상 특징을 발 견시켰다. 연구의 결과로 전통 색채 체계의 표준색채 간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전통 색채의 다양성을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전통 색채의 응용과 발전을 추진하고 각국 간의 색채 문화 연구와 다양한 국가 간의 문화교류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 패턴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한중일 전통 색채 이론 비교

- 2-1. 전통 색채 이론 비교
- 2-2. 한중일 전통 색채
- 2-3. 한중일 전통 색채 색채군

### 3.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 비교 분석

- 3-1. 전통 색채의 색채 특성
- 3-2. 색채 비교 분석결과

### 4.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전통 색채는 한 나라 색채 문화의 구현으로 그 안에 담고 있는 민족문화와 시각적인 특징은 그 나라의 색채에 대한 인지적 특성을 잘 나타낸다. 그러면 전통 색채는 어떻게 형성하는 것인가?

Johannes Itten은 “The Art of Color: The Subjective Experience and Objective Rationale of Color”에서 “색채는 원시시대에 이미 존재한 개념이라고 언급하였다.”<sup>1)</sup> 원시 사회에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주술 통해 가혹한 자연환경에 저항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빙하기 인류는 이미 동굴 암벽에 수렵 장면을 그리고 적토(赤土)와 피를 몸에 발라 힘을 빌렸다. 또는 자연계로부터 색을 얻어 도기에 토탕을 그려 제사를 지냈다(예: 적철광분과 혈액에서 붉은색을, 탄화물에서 검은색을, 토양에서 노란색을, 짐승 뼈와 조개껍데기에서 흰색을 얻었다). 부족들은 제사를 통해 숭배하는 색채가 생겨 민속 색채가 형성되었으며, 그 후 민속 색채는 역사의 계승과 발전을 거쳐 전통 색채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한중일 전통 색채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된 연구자료를 찾았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에서 전통 색채에 관한 연구 논문은 매우 많았다. ‘전통 색채와 ‘한국전통 색채’, ‘한국과 중국전통 색채’, ‘한국과 일본전통 색채’, ‘한국중

국일본의 전통 색채라는 키워드를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 전통 색채와 한국전통 색채에 관한 관심이 가장 많고, 한국과 일본전통 색채에 관한 비교연구가 한국과 중국전통 색채에 관한 비교연구보다 많았으며 한중일 전통 색채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RISS에서 ‘한국-중국-일본전통 색채라는 키워드로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한 결과 석박사 논문은 각 199편과 182편으로 이 중에서 내용이 한국-중국-일본전통 색채와 부합한 논문은 12편 불과했다. 그중 건축과 의복 쪽의 연구가 많았고, 한중일 전통 색채를 비교하는 연구는 없었다. 또한, 한국색채학회의 1996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정기 간행물의 검색 결과 전통 색채에 관한 연구는 총 15편이고 그중 전통 색채 비교 연구에 관한 논문은 두 편밖에 없었다. 전통 색채 체계에 있어서 색채 특성(색상(色相), 명도, 채도)에 관한 연구 특히 한중일 전통 색채(즉 아시아 색채 문화)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의 표준색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된 목적은 인문적인 배경이 전통색채 체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한중일 전통색채 체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의 색채 특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디자이너에게 참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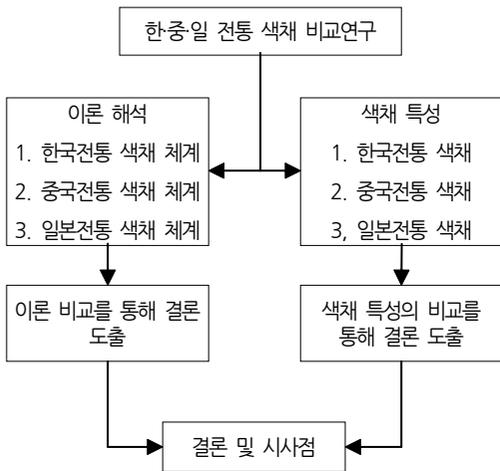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비교를 통해 한중일 전통

1) Johannes Itten, The Art of Color: The Subjective Experience and Objective Rationale of Color, John Wiley & Sons publish, 1974, p.2

색채에 관한 이론과 색채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 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하여 한·중·일 전통 색채의 연구 상황을 파악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각 나라 전통 색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다음에 한·중·일의 전통 색채의 범위를 확인한 후 출된 한·중·일 세 나라의 전통 색채를 RGB 수치를 사용하여 NCS 색채 시스템에 적용하여 전통 색상색채 군을 만들었다. 제3장에서는 한·중·일 전통 색채의 색상과 명도, 채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연구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논문 연구구조

연구의 범위로는 색채를 인지한 원시 부족 사회로부터 색채가 체계화된 현재까지를 범위로 삼았으나 범위가 넓어 본 연구의 집중도를 위해 한국은 1991년에 출간된 '한국 전통 표준 색채 및 색상', 일본과 중국은 2005년에 일본의 DIC 에서 출간된 '세계전통 색채 사전'까지를 범위로 제한하였다.

## 2. 한중일 전통 색채 이론 비교

“서양의 색은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색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이론들에 의해 형성되었다.”<sup>2)</sup> 동양의 색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함께 우

주 안의 가능한 모든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윤리와 철학이 결합 되어 있는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sup>3)</sup>

### 2-1. 전통 색채 이론 비교

#### 2-1-1. 색채 의식과 색채 숭배

##### 1. 한국

삼국지위서동이전(三國志魏書東夷傳)에 의하면 고대의 한민족이 사머니즘을 믿는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Feuerbach는 “자연은 종교의 최초이고 원시의 대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모든 종교와 민족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하였다.<sup>4)</sup> 열악한 자연환경은 고대의 한민족을 하늘과 자연을 두려워하면서도 의존하게 하였다. 따라서 하늘과 자연에 영혼을 부여하여 숭배하였다. 태양에 대한 원시적인 숭배는 고대인들이 광명을 상징하는 흰색을 숭배해 해 흰색 옷을 입게 하였다. 자연환경이 열악해 불에 대한 숭배가 생겼다. 불은 추위를 쫓고, 야수를 몰아내며 익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후한서·동이전에서 고구려 동쪽에 큰 동굴이 있는데 수신(燧神)이라고 불리며 10월에 제사하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신(燧神)은 바로 불의 신이고 사머니즘에서 자연에 대한 숭배에서 불(빨간색)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대 사머니즘 의식에서 무당은 동물의 피(빨간색)로 부적을 써 힘을 얻기를 기원하였다. 이런 색채 숭배는 주술의 기호와 직결되고 인간의 관념적인 상상이다.

##### 2. 중국

중국의 색채 의식은 주술과 제사 활동에서 비롯돼 자연에 대한 숭배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주술적 색채가 정신의 근원이 되며 색채에 대한 수요는 색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의 필요에 따라 신비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석기시대 원시인들은 빨간색으로 몸이나 도구에 칠하는 것이 부족의 위력에 대한 숭배와 자연을 정복하는 야망의 상징이었다. 이때 ‘빨간색은 고대인에게 생리적 감각의 자극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미도 담도 있다.’<sup>5)</sup> 그 의미 자체는 고대인들이 색채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를 보여주었다. 고고 사에서 채도(彩陶)의 출현은 고대인들 제사에 여러 개 색채를 썼다는 것을

2) 김문영,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한국전통색 활용,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18

3) <http://encykorea.aks.ac.kr>

4) Ludwig Andreas Feuerbach, (1848), Das Wesen der Religion, (왕태경역), 인민출판사, 1999, p.3

5) 이탁후, 미의 역정, 문물출판사, 1981, p.24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대인들이 회도, 흑도, 홍도, 백도, 채도에 나타난 색채를 이용하여 신령에 숭배하였다. “이런 단순한 예술 활동은 고대인들의 색채 심미에 대한 추구이고 세계 만물의 우연성과 해방에 대한 완벽한 표현”이다.<sup>6)</sup>

### 3. 일본

일본 최초의 색채 의식은 천도 세계관에서 비롯되는데 자연의 아름다움과 색채 미를 숭상한다. 다다 미치타로가 ‘일본의 문화 구조’에서 일본 고유문화 중의 일부 문화는 일본의 자연미를 통해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일본의 고대인들이 자연을 인격화하여 신령이 사람을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자연 만물은 모두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며 색채가 마력이 있다고 여겼다. 히구찌세이시(ヒグチセイシ)는 ‘대자연과 일본인’에서 일본인 최초의 성격과 미에 대한 의식의 형성은 어느 정도에서 그들이 처하는 자연환경에 의해 결정한다고 말하였다. 무라야마사다야(ムラヤマサダヤ)는 ‘사람들은 왜 색채에 집착하는가’에서 색채가 사람의 자연생활에서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흰색을 최초로 존재한 색으로 여겼다. 그 후에 빨간 점토, 검은 숯과 흰색(진주, 석회, 백토)이라는 세 개 색을 주술 활동에 함께 사용했기에 이 시기의 원시적 색채 가치는 고대인의 특정한 관념적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 카가와이사무(カガワイサム)와 하세가와(はせがわ)는 ‘原色の色彩語事典’ 적색은 생명의 재생을 기도할 때 사용하고 흑색은 감정의 억제이며 백색은 일본 천도에서 더러운 금기에 대한 반대라고 지적하였다.

## 2-1-2. 전통 색채 체계의 형성

### 1. 한국

한국인의 색채 의식은 오래된 사머니즘에서 시작되고 삼국시대와 조선 왕조에 이르기까지 음양 다섯 개 요소와 결합하여 한국의 전통 색채를 형성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중국 음양오행설이 전래 돼 오방색 사상을 형성하였다. 한국의 오색은 청, 적, 황, 백, 흑색을 포함한다. 청, 적, 황, 백, 흑색을 정색 또는 오방 정색이라 하는데, 이것은 ‘음양오행사’에서 양에 해당한다.<sup>7)</sup> 조선 시대(1392~1910)에 이르러 유교는 국가 사상으로 예의범절을 지도하였다.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버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규범이므로, 사치의 습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8)</sup> 한국의 전통 색채는

6) (Germany) Wilhelm Worringer, (1908), Abstraction and empathy, (왕재용역), 금성출판사, 2010, p.42

7)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99, p.46

중국 오행설을 바탕으로 자기 민족의 오방색 이론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한국전통 색채 체계는 유교 사상으로 행위 규범을 지도하는 전통 색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 2. 중국

중국의 전통 색채는 각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 민속, 그리고 사상 관념과 심미적 취향의 반영이고 내용이 풍부하며 응용 범위가 매우 넓다. 중국의 건축, 복식, 회화, 조각, 도자기, 칠기, 전지(剪纸) 등 전통문화의 곳곳에는 색채의 장식이 빠질 수 없다.<sup>9)</sup> 중국에서 오색이라는 말이 전국시대 손 무(法武)의 ‘손자병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손자병법’에는 청, 적, 백, 흑, 황 다섯 개 색이 있지만, 이 다섯 개 색이 섞이면 다양한 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였다. 오색관 색채 이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사서인 ‘주례’이다. ‘(주례에서) 화귀지사, 잡오색(画纁之事, 杂五色) 그림을 그리거나 자수할 때 청, 적, 백, 흑, 황 다섯 개 색을 사용하여 화면의 색이 다양하면서도 조화롭다.’라고 하였다. 이는 중국전통 색채의 미학적인 관점을 이루게 하였다. ‘오색이란 무엇인가? ‘사원(辭源)’에는 ‘오색’은 청, 황, 적, 백, 흑이라고 하고 그 후에 모두 이 다섯 개 색을 주요 색으로 여긴다. 라고 기록하였다. 서주에 이르러 ‘정색’과 ‘간색’이라는 색채 개념이 제기되었다. ‘정색론’이란 ‘오원색론’이고 즉 적, 청, 황, 흑, 백이라는 오원색으로 이루어진 ‘오색체계’이다. 사회 발전과 주관적 사고의 향상, 그리고 색채 관념의 깊어짐에 따라 점차 정색과 간색, 양의지색(两仪之色), 오행지색(五行之色), 오방지색(五方之色), 사신지색(四神之色), 오색토, 제덕지색(帝德之色) 등 색채를 사용하는 관념을 이루었다. 이로써 완전한 중국의 오색 이론과 중국의 전통 색채 체계가 형성되었다.

### 3. 일본

일본의 전통 색채는 수천 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생활 속에서 형성된 고유의 색명에서 비롯된다. 아가네색(茜色), 시노노메색(東雲色), 가메노즈기색(瓶覗(き)), 니비색(鈍色), 아가쿠치바색(赤朽葉色), 강비색(萱草色), 도메공(留紺色)등이 그것이다. 이런 우아한 색명과 다채로운 색채들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배려와 사계절 변화에 대한 섬세한 감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생활 정서와 심미 심리를 기록하였다.<sup>10)</sup> ‘고사지상권(古事記上卷)’에

8) <http://www.history.go.kr>.

9) 鸿洋, [中国传统色彩图鉴], 东方出版社, 2010, p.3

10) 長澤陽子,

해의 여신이 천상에 있다는 동굴의 문에 숨기는 신화 부분에 색채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일본 색채 학자인 前田雨城(전밭비성)<sup>11)</sup>은 청과 백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는 색채라고 하였다. 일본 국어국문 학자인 佐竹昭広(좌죽조광)<sup>12)</sup>은 일본 고대에서 순수하게 색채를 표현하는 단어는 적, 흑, 백, 청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빛에 대한 '밝음, 어두움, 현저함, 모호함'이라는 느낌에서 왔다. 이로써 초기의 적(밝음), 흑(어두움), 백(현저함), 청(모호함) 네 개 전통 색채가 형성하였다. 6 세기에 이르러 중국 문명이 일본에 전래하여 일본의 색채 심미 문화가 중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일본은 청, 적, 황, 백, 흑이라는 다섯 개 색을 사용하였다. 에도 시대에 이르러 불교 선종(禪宗)'없음'의 영향으로 '무상'이라는 개념은 일본 일상생활에 침투하여 '와비(侘び)와 사비(寂び)'를 위주로 하는 일본의 전통 색채가 형성하였다.

### 2-1-3. 계급별 색채 응용

#### 1. 한국

고려 충렬왕(재위:1236~1308)은 푸른색을 숭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흰색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 후에 염색 기술이 전래하여 황실 복장에 색채 비단이 등장했고, 심지어 귀족은 자주색과 빨간색, 푸른색, 그리고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의 옷을 입었다. 조선 시대(1392~1910)에는 유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잡색은 비천하고 격조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또 이때 전통 색채의 사용은 엄격한 계급 금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흥덕왕이 반포한(삼국사기 23권 잡기2 복색(服色)조)에서 계급에 따라 자색, 청색, 진홍색, 무색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왕만 노란색 옷을 입을 수 있고 평민은 흰색을 입어야 하였다. 그러나 명도를 낮춘 노란색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모든 신하가 아황색(鵝黃色)을 제외한 황색을 입거나 신을 수 있다고 하니, 한국에서는 정황색(正黃色) 외에 황색에 가깝게 염색한 것을 입거나 신는 것을 금지하지 말자고 청하였다. 그리고, 품계를 가진 관리와 사대부의 자식 외에는 향리나 상인, 천민과 노비 등 사람은 붉은색으로 염색한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였다.

[日本の伝統色を愉しむ季節の彩りを暮らしに], 東邦出版, 2014, p.5

11) 前田雨城, [日本古代の色彩と染], 河出书房新社, 1975, p.32

12) 佐竹昭広, [古代日本語における色名の性格], 京都大学国語国文研究, 1955, p.42

#### 2. 중국

중국의 전통 색채는 금기가 많고 통치자에 의해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전통 색채 체계가 봉건 사회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전체 색채 체계가 농후한 등급 구분을 지니고, 색채의 등급 구분이 복장에서 특히 뚜렷하다. 예를 들어 '송사 여복지'에서 서민, 상인, 기술관(技術官), 연예인이 아닌 사람은 검은색과 흰색만 입을 수 있고 자주색을 입을 수 없다고 기록하였다. 청나라에 이르러야 염색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색채의 계급 문화를 약화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전통 색채 체계는 실제 운용에서 정색과 다양한 색은 흔히 황실과 고급 관리의 복장과 관복에 많이 사용하고 정색이 서로 뒤섞인 간색(間色)은 정색에 못지 않지만, 관료에게 사용되었다. 백성들이 열린 색과 회색을 포함한 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 3. 일본

일본의 전통 색채는 계급 사용 금기시기가 있었다. 효덕 천황 대화 3년에 5개 복색 제도를 제정하였는데, 모자와 복장 제도의 개혁이 당시 관료 기구 전체에 스며들었다. 직관(織冠)과 수관(綉冠)은 짙은 자주색이고 자관(紫冠)은 옅은 자색, 금관(錦冠)은 짙은 붉은 색, 청관(靑冠)은 검정, 흑관(黑冠)은 녹색, 건무관(建武冠)은 검은색이다. '日本書紀'에서 推古天皇 11년 12월에 모자와 복장의 색으로 등급과 귀천을 구분하는 것을 기록하였다. 덕(자), 인(청), 예(적), 신(황), 의(백), 지(흑)의 순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성덕태자가 복장을 법제화하기 위해 만든 관위십이계(冠位十二階)이다. 헤이안 시대 이후 천황이 일상적으로 입는 두루마기는 청백 도토리 색으로 염색되었다. 일본의 '대보율령(大宝律令)'은 천황을 대표하는 색은 흰색이고, 태자는 단황(丹黃)이며, 제 일품은 짙은 자주색이고 제이, 제삼 품은 옅은 자주색이며 제 사품은 짙은 적색이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짙은 적색과 자주색은 황실 외의 사용이 금지하였다. 이 규정은 1945년까지 유지하였다.

앞에 말한 것을 종합하면 한중일의 전통 색채는 생활과 역사, 그리고 문화 등에서 비롯된다. 전통 색채는 각종 문화색채 등의 통일과 기호화를 수반하여 내려오는 과정에서 국가가 전통 색채를 표준화시켜 전통 색채의 내용과 차이점을 흐릿하게 하고 없애기도 하여 최종적으로 본국의 전통 색채 체계가 형성되었다.

### 2-2. 한중일 전통 색채

#### 2-2-1. 한국의 전통 색채

[표 1] 한국의 전통 색채

Color	Quantity	Name
황색	16	황색, 우황색, 명황색, 담황색, 순황색, 자황색, 행황색, 두록색, 적황색, 토황색, 지황색, 토색, 치자색, 홍황색, 지황색, 금색
청색	17	청색, 벽색, 천청색, 담청색, 취람색, 양람색, 벽청색, 처현색, 감색, 남색, 연람색, 벽람색, 속람색, 궁청색, 삼청색, 흑청색, 청벽색
녹색	15	녹색, 명록색, 유록색, 우청색, 연두색, 춘유록색, 청록색, 진초록색, 초록색, 흑록색, 비색, 뇌록색, 양록색, 하엽색, 옥색
적색	21	적색, 홍색, 적토색, 홍색, 갈색, 호박색, 추황색, 육색, 주색, 주홍색, 담주색, 진홍색, 선홍색, 연지색, 혼색, 진분홍색, 분홍색, 연분홍색, 장단색, 석간주색, 홍색
자색	11	자색, 자주색, 보라색, 홍람색, 푸도색, 청자색, 벽자색, 회보라색, 담자색, 다자색, 적자색
회색	10	백색, 흑색, 회색, 구색, 구색, 치색, 연지회색, 설백색, 유백색, 지백색, 소색

한국의 전통 색채 연구는 1990년의 ‘한국의 전통 색채(KBS 한국색채연구소)를 시작으로 1991년과 1992년에 ‘한국전통 표준 색명 및 색상’(국립현대미술관)이 출간되었다. 한국은 1991년 10월에 3개국 중 가장 먼저 10개의 전통 표준색을 확립하였다. 그 후에 오방색의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231개의 한국전통 색채를 수집하였다. 이는 66개의 적색, 34개의 황색, 48개의 파란색, 44개의 녹색 그리고 21개의 자색과 18개의 백색과 흑색을 포함하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90개 색을 한국의 전통 표준색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sup>13)</sup> 국립현대미술관이 1992년에 발간한 한국 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제2차 시안)에서 70여 개의 전통 표준색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 1]과 같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90개를 연구 내용으로 삼았다.

2-2-2. 중국의 전통 색채

중국전통 색채의 색명과 내용은 ‘세계전통 색채 조사’를 참고하였다. 이 책은 일본의 DIC 회사에서 출간하고 중국의 저명한 색채 전문가인 송건명 선생이 중국 전통 색채 편집에 참석하였다. 최근 몇 년간에 중국전통 색채 이론과 색명 해석에 관한 연구 저서가 많지만, 대부분은 색채 관념에서 전통 색채를 기술할 뿐이고 색명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책이 극히 적다.

13) <http://www.mmca.go.kr>

[표 2] 중국의 전통 색채

Color	Quantity	Name
황색	34	황색조(16): 실과화황색(丝瓜花黄), 황유리색(黄琉璃), 단황색(蛋黄), 연추황색(浅秋香黄), 카메종색(咖啡棕), 녹피황색(鹿皮灰), 육분황색(肉粉黄), 녹피종색(鹿皮棕), 금황색(金黄色), 합본색(蛤粉), 석황색(石黄), 상아색(象牙白), 단황색(檀香色), 괴황색(槐黄), 명황색(明黄), 유리황색(琉璃黄) 등색조(12): 장단색(章丹), 갈색(桔色), 금황(金黄), 피홍색(血红), 추황색(秋黄), 연갈색(烟褐色), 나한과색(罗汉果褐), 남과황색(南瓜黄), 자홍색(赭红), 계피종색(桂皮棕), 금홍색(金红), 견황색(田黄色) 등색조(6): 선금색(线金), 금박색(金箔), 이금색(泥金), 다적금(大赤金), 은박색(银箔), 은서회색(银鼠灰)
청색	20	호수남색(湖水蓝), 전청색(靛青), 궁청색(群青), 보석남색(宝石蓝), 백방회남색(柏枋灰蓝), 해남색(海蓝), 장남색(藏蓝), 각회색(鹦灰), 태청색(钛青), 화청색(花青), 장흑남색(藏黑蓝), 죽월색(竹月色), 설남색(雪蓝), 유리남색(玻璃蓝), 진석청색(深石青), 감청색(紺青), 진와회색(深瓦灰色), 공작남색(孔雀蓝), 청금색(靑金色), 호남회색(湖蓝灰)
녹색	39	초록색조(21): 연녹색(艳绿), 보석녹색(宝石绿), 송석녹색(松石绿), 양무녹색(鹦鹉绿), 공작녹색(孔雀绿), 호수녹색(湖绿), 유녹색(油绿), 흑녹색(墨绿), 취녹색(翠绿), 옥청색(玉青), 과녹색(果绿), 옥녹색(玉绿), 사녹색(四绿), 연소녹색(浅松绿), 남회색(蓝灰), 유리녹색(玻璃绿), 동엽녹색(冬叶绿), 과녹회색(果绿灰), 삼녹색(三绿), 연물녹색(浅水绿), 두청색(豆青) 등황록색조(13): 양도색(洋桃色), 고과녹색(苦瓜绿), 초록색(葱绿), 황록색(黄绿), 연홍녹색(嫩葱绿), 감람녹색(橄榄绿), 창녹색(苍绿), 아녹색(芽绿), 연초록색(浅草绿), 고녹색(枯绿), 연초록색(嫩草绿), 연갈람녹색(浅橄榄绿), 동녹색(铜绿色) 남초록색조(5): 품녹색(品绿), 벽옥석녹색(碧玉石绿), 사막녹색(沙漠), 모녹색(毛绿), 회녹색(灰绿)
적색	25	진홍색(艳红), 서홍색(猩红), 말리홍색(茉莉花红), 대홍색(大红), 정미홍색(玫瑰红), 청춘홍색(长春红), 진연홍색(深烟红), 자강홍색(紫绛红), 진유홍색(深绛红), 자선매색(紫扇贝), 설자색(雪紫), 분봉선(粉凤仙), 살분색(肉粉色), 분봉선색(粉凤仙), 육홍색(肉红), 홍회련색(红灰莲), 해당화홍색(海棠花红), 주피색(朱膘), 주홍색(朱红), 월계홍색(月季红), 담홍색(品红), 진사색(辰砂), 은주색(银朱), 주홍(朱红), 유홍색(榴红)
자색	13	무궁자색(木槿紫), 청련자색(靑莲紫), 견우자색(牵牛紫), 용담자색(龙胆紫), 진자라난색(深紫罗兰), 경향자색(丁香紫), 설정색(雪青), 자수정색(紫水晶), 자미화색(紫薇花), 자등화색(紫藤花), 분선자색(凤仙紫), 양종자색(洋葱紫), 연봉선자색(浅凤仙紫)
회색	3	조홍색(赭黑色), 송연색(松烟色), 유연막색(油烟墨)

[표 3] 일본의 전통 색채

Color	Quantity	Name
황색	31	황색조(15): 단포포색(たんぽぽいろ), 카나리아색(かなりあいろ), 스즈메색(すずめいろ), 카키색(かき), 스즈메차색(すずめちや), 무시구리색(むしぐりいろ), 고쿠리쿠지나시색(こきくちなし), 나다네야부리색(なたねあぶらいろ), 이네와리색(いねわら), 아오쿠치바색(あおくちば), 뉴하쿠쇼쿠(にゅうはくしょく), 오도색(おうどいろ), 나미카비색(なまかべいろ), 카리아스색(かりやすじ安), 노고차색(ろうちや) 등색조(16): 다이다이색(だいだいいろ), 감비색(かんそういろ), 오니색(おうに), 고지색(こうじいろ), 쿠리색(くりいろ), 이엔스색(イエンスー), 키치차색(からちや), 사쿠라색(さくらいろ), 아카시로루바메색(あかしろつるばみ), 니쿠루(にくいろ), 쿠리무색(クリームいろ), 카레무사색(かれくさい), 쿠치바색(くちばいろ), 벤가라색(べんがらいろ), 지와다색(ひはだいろ), 분경차색(ぶんじんちや)

청색	29	파란색조(22):터키석청색(ターコイズい),아미노기색(アミノ),콘베기색(こんべぎ),루리색(るりい),쿠지아쿠아오색(くじゃくあお),아이색(あいい),코이히나디색(こいはなだ),공조색(ぐんじょういろ群),계공색(てつこん),고아색(こいあい),공색(こん),비아쿠공색(びやくぐん),아오부지색(あおふじ),난도색(なんどい),나카히나디색(なかはなだ),스네즈미색(すねずみ),케시즈메색(けしずみい),아이지르색(あいじ),아시히나디색(あさはなだ),히나아사기색(ひなあさぎ),노시메색(のしめい),히나디색(ひなだいろ)초록색조(7):카모노하색(かものはいろ),키교색(ききょういろ),우스메즈색(うすみずいろ),우스아사기색(うすあさぎ),미즈색(みずいろ),난도색(なんどい),가메노즈키색(かめのぞき)
녹색	28	초록색조(12):오류쿠색(おうりよく),호세키미도리색(ほうせきみどり),타고이즈미도리색(たごいずみどり),토키와색(ときわいろ),프카미도리색(ふかみどり),쿠지아쿠미도리색(くじゃくみどり),치토세미도리색(ちとせみどり),쿠로미도리색(くろみどり),미루아이색(みるあい),아사미도리색(あさみどり),토쿠사색(とくさい),아마이아지색(やまあいずり)황녹색(16):와카나에색(わかなえいろ),와카쿠사색(わかくさい),모에기색(もえぎいろ),시도콜미도리색(しとろんみどり),우구이스색(うぐいすいろ),오리브색(オリブ),아나기색(アナギ),와카메색(わかめいろ),그일색(グリーン),비아쿠로쿠색(びやくろく),이교차색(いこうちゃ),고개색(こけいろ),마츠바색(まつばいろ),류료쿠색(りゅうりよく),리큐네즈미색(りきゅうねずみ),마차색(まっちゃんいろ)
적색	22	무라사기베니색(むらさきべに),카라쿠레라이색(からくれなゐ),베니하색(べにひ),로즈색(ローズ),이치고색(いちごいろ),고기아게색(こきあけ),고기색(こきいろ),애비치색(えびちや),우로바색(ヨーロッパ),이공조메색(いっこんぞめ),아기바사쿠라색(あきばさくらいろ),진주색(しんじゆ),쿠레나이우스색(くれないうすいろ),우메무라사기색(うめむらさき),고바이색(こうばいいろ),아사카색(あさあけ),아게색(あけ),베니색(べにいろ),아카네색(あかねいろ),아메스오색(あかさおう),아즈기색(あずきいろ),슈색(しゅいろ)
자색	18	교색(きょういろ),프타아이색(ふたあい),보탕색(ぼたん),스미레색(すみれいろ),시도색(しとういろ),봉무라사기색(ほんむらさき),카기프바타색(かきつばた),나스공색(なすこん),쿠와노미색(くわのみいろ),시공색(しこんいろ),프지색(ふじいろ),라벤더색(ラベンダー),라이아쿠색(ライラック),하도바색(はとばいろ),기교우색(ききょういろ),애바색(えびいろ),에도무라사기색(えどむらさき),베니프지색(べにふじ)
회색	2	킹네즈미색(きんねずみ),스미색(すみいろ)

전통 색채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세계전통 색채 조사전을 참고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중국의 전통 색채 색명은 이를 기초로 하였다. ‘세계전통 색채 조사전에서 중국전통 색채 135개를 수집하였다. 예) 유리 황색(琉璃黄). 이는 [표 2]와 같이 25개의 적색, 34개의 황색, 20개의 파란색, 39개의 녹색, 13개의 자색, 3개의 회색을 포함한다.

### 2-2-3. 일본의 전통 색채

일본 전통 색채도 ‘세계전통 색채 조사전을 참고하였다. 책의 일본 전통 색채에 관한 부분에는 색채 중의 ‘와비(侘び)와 ‘사비(寂び) 등 전통 색채 개념을 결합하여 색명을 편집하였다. 일본은 ‘日本和色大辞典 및 전통 색채에 관한 연구 성과가 풍부하다. 하지만, 전문 색채연

구 기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애호가들에 의해 제작되어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DIC 연구 기관이 권위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 일본의 전통 색채 색명도 이를 바탕으로 참고하였다. ‘세계 전통 색채 조사전에서 일본전통 색채 130개를 수집하였다. [표 3]과 같이 22개의 적색, 31개의 황색, 29개의 청색, 28개의 녹색, 18개의 자색, 2개의 회색을 포함한다.

## 2-3. 한중일 전통색 색채군

### 2-3-1. 전통 색채 추출 도구

세 나라는 다른 색채 도구를 통해 RGB 값을 추출하여 색채 군을 만들었다. 먼저, 색채 시스템에서 CMYK 모델은 인쇄 매체에 대한 색채 시스템이고 Lab 색채 모델은 절대 좌표 수치인데 장비와 관련이 없는 생리적 특성에 기초한 시스템이며 RGB 색상 모델은 컴퓨터 모니터에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의 색채 분석은 NCS 색상 체계에 도입하여 결과를 보여 주므로 RGB 색값을 선택하게 되었다.

[표 4] 색채 도구

	한국	중국	일본
도구		DIC Traditional colour of China V3.0 	DIC Traditional colour of NipponV3.0 
인터넷 주소	<a href="http://web.kats.go.kr/KoreaColor/color.asp">http://web.kats.go.kr/KoreaColor/color.asp</a>	<a href="http://www.qtccolor.com/Color/C-45058.aspx">http://www.qtccolor.com/Color/C-45058.aspx</a>	<a href="https://www.qtcclor.com/Color/C-45667.aspx">https://www.qtcclor.com/Color/C-45667.aspx</a>

NCS 시스템의 색은 자연을 기반으로 하고 소재와 문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NCS 색 공간에서 각색의 위치 측정 및 표시를 통해 색 사이의 거리, 색 군집과 색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며 모든 색 범위 내의 색 분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CS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sup>14)</sup> 한국전통 색채 표준 RGB는 국가기술표준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색 이름 팔레트에서 검색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전통 색채 표준 RGB는 모두

14) <https://ncscolour.com>

일본 DIC 색채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색 카드를 참고 하였다(미국의 PANTONE과 Munsell, 독일 NCS, 일본 DIC, 스웨덴 NCS 등은 모두 자주 상용하는 색 카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색채 도구는 [표 4]와 같다.

### 2-3-2. 색채군 추출 과정

색채 군 샘플색 카드와 인터넷을 통해 먼저 색 카드를 통해 색채 번호를 찾아내고 색 카드 기관에서 제공하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표준 NCS를 검색하여 색채 군을 작성하였다.

한국 전통 색채인 명황색을 표준연구원에 입력하고 해당 색명을 찾은 후에 명황색의 RGB값을 얻었다.<sup>15)</sup> 색채 RGB 색값의 추출 방식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한국전통 색채 추출 방법

중국 전통 색채인 동록(铜绿) 색을 DIC Traditional color of China V3.0에 번호를 입력 동록색의 RGB 값을 찾았다.<sup>16)</sup> 색채 RGB 색값의 추출 방식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중국전통 색채 추출 방법

일본 전통 색채인 백 초록색을 DIC Traditional color of Nippon V3.0에 번호를 입력하여 백 초록색의 RGB 값을 찾았다. 색채 RGB 색값의 추출 방식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일본전통 색채 추출 방법

### 2-3-3. 한중일 색채 NCS 색채 참고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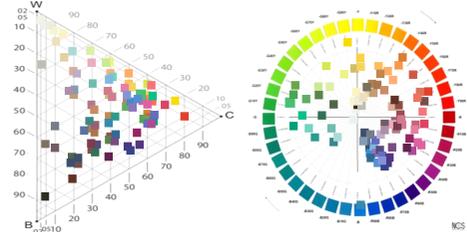
위의 과정을 거쳐 얻은 한중일 전통 색채의 RGB 색값을 NCS 색채 체계를 도입 한중일 색채 군을 만들었다. 한중일 색채 군은 [표 5]와 같다.

[표 5] 한중일 전통 색채 군 (NCS 기준)

한국	중국	일본

### 2-3-4. NCS 분석 과정

더 쉽게 색상, 명도와 채도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색채 군을 NCS 색채 체계에 적용하여 '추출 색채 분포'를 얻었다.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NCS 분석 과정

한국전통 색채 [그림 5]와 같이 먼저 NCS 색채 체계에 적용하고 그다음 '색상 수 감소' 버튼을 눌러 추출 색상 분포를 얻는다. 중국과 일본의 전통 색채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5) <http://web.kats.go.kr>

16) <http://www.qtccolor.com>

### 3.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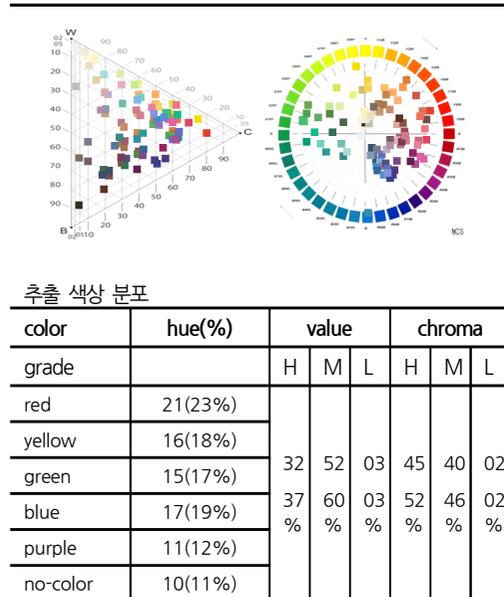
한중일 전통 색채는 동양 문화의 특성을 잘 나타 내기에 색채 분석 시 이론에 기초한 전통 색채 특성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색채 체계이론도 분석해야 한다. 색채 이론에서는 전통 색채 의식과 색채 숭배, 색채 체계의 형성과 등급별 색채 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찾았다. 전통 색채 특성은 주로 색상, 명도, 채도를 통해 한중일 전통 색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 3-1. 전통 색채의 색채 특성

##### 3-1-1. 한국전통 색채 체계

NCS 분포도와 전통 색채 개수 통계에 따라 한국전통 색채 체계에서 색상으로 보면 적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6] 한국전통 색채의 색채 특성



(H=high, M=mid 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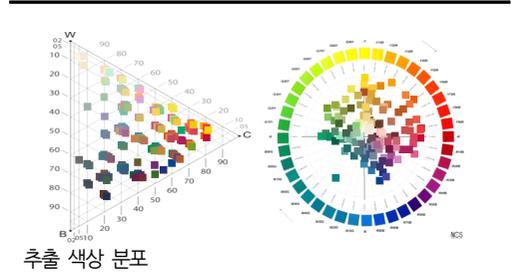
이 중에서 적색은 21개로 23%를, 청색은 17개로 19%를, 녹색은 15개로 17%를, 황색은 16개로 18%를, 자색은 11개로 12%를, 회색은 10개로 11%를 각각 차지하였다. 명도로 보면 중간 명도 색채를 위주로 하였다. 이 중에서 고명도 색채는 32개로 37%를, 중간 명도는 52개로 60%를, 저 명도는 3개로 3%를 차지하였다. 채도로는 고채도가 가장 많다.

고채도 색채는 45개로 52%를, 중채도 색채는 40개로 46%를, 저채도 색채 2개로 2%를 차지하였다. NCS 색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 3-1.2. 중국전통 색채 체계

NCS 분포도와 전통 색채 개수 통계에 따라 중국전통 색채 체계에서 색상으로는 황색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7] 중국전통 색채의 색채 특성



(H=high, M=mid L=low)

이 중 적색은 25개로 총 19%를, 청색은 25개로 19%를, 녹색은 30개로 22%를, 황색은 39개로 총 29%를, 자색은 13개로 10%를, 회색은 3개로 2%를 각각 차지하였다. 명도로 보면 고명도 색채를 위주로 하였다. 이 중에서 고명도 색채는 89개로 69%를, 중명도 색채는 33개로 25%를, 저명도 색채는 8개로 6%를 차지하였다. 채도로는 중채도 색채가 많다. 이 중에서 고채도 색채는 34개로 27%를, 중채도 색채는 61개로 49%를, 저 채도 색채는 30개로 24%를 차지하였다. NCS 색채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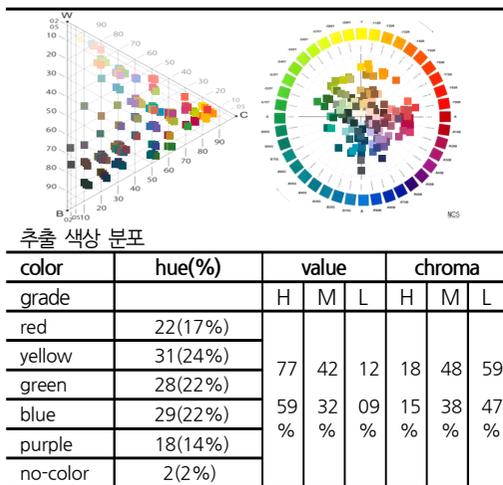
#### 3-1-3. 일본의 전통 색채 체계

NCS 분포도와 전통 색채 개수 통계에 따라 일본의 전통 색채 체계에서 색상으로는 황색 비율이 가장 높

았다.

이 중에서 적색은 22개로 17%를, 청색은 29개로 22%를, 녹색은 28개로 22%를, 황색은 31개로 24%를, 자색은 18개로 14%를, 회색은 2개로 2%를 각각 차지하였다. 명도로는 고명도 색채를 위주로 하였다. 이 중에서 고명도 색채는 77개로 59%를, 중 명도 색채는 42개로 32%를, 저명도 색채는 12개로 9%를 차지하였다. 채도로 보면 채도가 낮은 색채가 많다. 이 중에서 고채도 색상은 18개로 15%를, 중채도 색상은 48개로 38%를, 저 채도 색상은 59개로 47%를 차지하였다. NCS 색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일본전통 색채의 색채 특성



(H=high, M=mid L=low)

### 3-2. 색채 비교 분석결과

#### 3-2-1. 한중일 전통 색채 색상 비교

##### 1. 한중일 전통 색채 색상 공통점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에서 주요 색조는 빨강 색조, 파랑 색조, 초록 색조, 노랑 색조, 보라 색조, 그리고 무채 색조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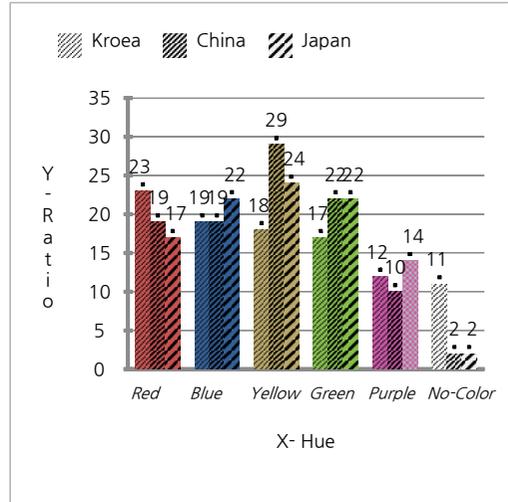
##### 2. 한일 전통 색채 색상 차이점

[그림 6]과 같이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의 색상은 적, 녹, 황, 청, 자색과 무채 색조로 구성한다.

주요 색조는 빨강 색조, 노랑 색조, 파랑 색조, 초록 색조이다. 빨강 색조, 노랑 색조, 파랑 색조와 초록 색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15% 이상이며 한국의 빨강 색조는 23%로 가장 높고 중국과 일본은 노랑 색

조를 위주로 하고 각 29%와 24%를 차지하며 중국과 일본에서 노랑 색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빨강 색조, 노랑 색조, 파랑 색조가 한중일의 전통 색채 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중일의 보라 색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 12%와 10%, 14%이다. 한중일의 무채 색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 11%와 2%이다.



[그림 6] 한중일 전통 색채 색상 비교

#### 3-2-2. 한중일 전통 색채 명도의 비교 분석 결과

##### 1. 한중일 전통 색채 명도의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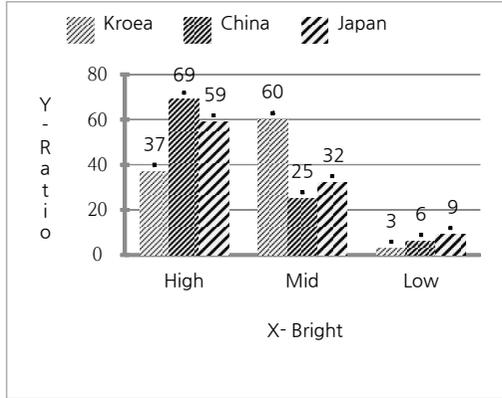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에서 저명도 색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낮고 그중 한국의 저명도 색이 3개밖에 없고 3%만 차지하며 중국의 저명도 색이 8개로 6%를 차지하고 일본의 저명도 색채는 12개로 9%를 차지한다.

##### 2.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 명도의 차이점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에서 한국은 중 명도 색채를 위주로 하고 총 52개로 60%를 중국에서 중 명도 색채는 33개로 25%를 차지하며 일본에서 중 명도 색채는 42개로 32%를 차지한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고명도 색채를 위주로 하는데 중국의 고명도 색채는 89개로 69%를 차지하고 일본은 77개로 59%를 차지하며 한국은 고명도 색채를 위주로 하고 총 35개로 37%를 차지한다. 종합해 보면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 명도에 있어서 [그림 7]과 같이 저명도 색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비교적 낮았는데 한국은 3%이고 중국은 6%이며 일본은 9%이다. 한국은 중 명도를 60%를 차지하고 중국과 일본은 고명도 색채를 위주로 하고 각 69%와 59%를 차지하였다.



[그림 7] 한·중·일 전통 색채 명도의 비교

### 3-2-3. 한·중·일 채도 전통 색채 비교 분석 결과

#### 1. 한·중·일 전통 색채 채도의 공통점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에서 채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이다. 중국은 중채도, 고채도, 저채도 순이고, 일본의 경우 저채도, 중채도, 고채도 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채도 색채가 한·중·일 전통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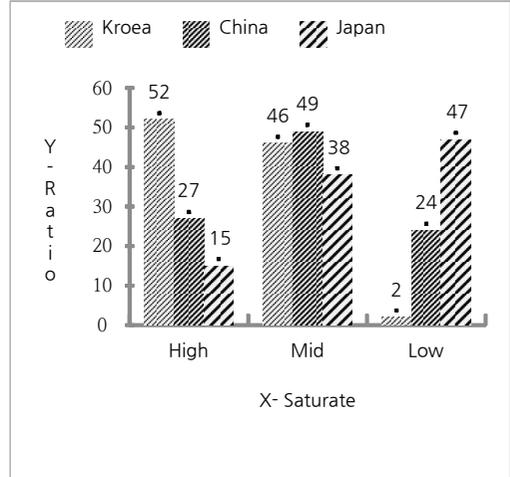
#### 2. 한·중·일 전통 색채 채도의 차이점

한·중·일 전통 체계에서 한국은 고채도 색채를 위주로 총 45개로 52%를 차지하고 중국은 중 채도를 위주로 총 61개로 49%를 차지하며 일본은 중 채도를 위주로 총 18개로 15%를 차지한다.

한·중·일 전통 체계에서 중채도 색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중간 편인데 그중 한국의 중채도 색채는 40개로 총 46%를 중국은 61개로 총 49%를 일본의 중채도 색채는 48개로 총 38%를 차지한다.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에서 한국과 중국의 저채도 색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낮은 편으로 그중 한국의 저채도 색채는 2개로 2%를 중국의 저채도 색채는 30개로 2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일본은 저채도 색채를 위주로 하고 59개로 총 47%를 차지한다. 종합해 보면 [그림 8]과 같이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의 채도

로 보면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에서 중 채도가 비교적 많으며, 한국은 52%의 고채도를 위주로 하고 중국은 49%의 중 채도를 일본은 47%의 저채도를 위주로 하였다.



[그림 8] 한·중·일 전통 색채 채도 비교

## 4. 결론

전통 색채 체계의 형성에서 한국은 흰색을 숭상하고 중국은 빨간색을 숭상하며, 일본은 빨간색, 검은색, 흰색을 숭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통 색채 이론 체계의 형성 과정에서 모두 중국의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국의 관습과 관념의 구속으로 전통 색채 응용에 색채 사용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세 나라는 모두 복장에서 색에 대한 사용 금기를 통해 계급을 표현하였다.

전통 색채의 색상, 명도와 채도에서 보면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에서 색상은 채색 색조인 적, 녹, 황, 남, 자색과 무채 색조로 구성하고 주요 색조는 빨강 색조, 노랑 색조, 파랑 색조, 녹 색조이다. 빨강 색조, 노랑 색조, 파랑 색조와 녹 색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15% 이상이며 한국은 빨강 색조가 가장 많고 차지하는 비율이 23% 중국은 29%의 노랑 색조를 위주로 하며 일본은 24%의 노랑 색조를 위주로 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노랑 색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빨강 색조, 노랑 색조, 파랑 색조가 한·중·일의 전통 색채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도에 있어서 저명도 색채가 차지하는 비율

이 모두 비교적 낮고 한·중·일 저명도의 비율은 각 3%, 6%와 9%이다. 한국은 69%의 중간 명도를 위주로 하고 중국과 일본은 69% 59%의 고명도 색채를 위주로 하였다. 채도에 있어서 한·중·일 전통 색채 체계에서 중채도 색채가 비교적 높지만, 한국은 52%의 고채도 색채를 위주로 하고 중국은 49%의 중간 채도를 위주로 하며 일본은 47%의 저 채도 색채를 위주로 하였다.

위의 연구결과에 따라 한·중·일 전통 색채의 특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파악한 후 향후 디자인할 때 현재 색채 디자인에서 쉽게 동질화되는 단점을 피하고 각국의 민속 특색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한국의 민속 색채는 고채도, 중간 명도의 색조를, 중국은 중 채도와 고명도 색조를, 일본은 저 채도와 고명도의 색조를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세 나라의 전통 색채가 갖는 전형적 색채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운용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의 전통 색채의 다양성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전통 색채의 적극적인 이용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간 색채 문화의 연구와 민족 간의 문화 교류의 추진하는 데에 새로운 사고 방향과 디자인 참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전통 색채의 연구는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철학, 미학 등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추상적이고 복잡한 과제이다. 또한, 지면의 제한으로 본 논문에서 간략하게 이론과 색채 특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더욱 포괄적인 국가 전통 색채의 심미적인 관습과 응용 상황 및 발전 추세를 얻을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전통 색채 사용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이재만, [한국의 전통색: 한국문화와 색의 비밀], 일진사출판사, 2011
2.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99

3. 日本DIC色彩设计株式会社, [世界传统色彩小辞典]. 中国美术学院出版社, 2005
4. 長澤陽子, [日本の伝統色を愉しむ季節の彩りを暮らしに], 東邦出版, 2014
5. 高桥健自, [图说日本服饰史], 李建华 译, 清华大学出版社, 2016
6. 鸿洋, [中国传统色彩图鉴], 东方出版社, 2010
7. 李泽厚, [美的历程], 文物出版社, 1981
8. 梅棹忠夫 多田道太郎. [日本文化の構造]. 講談社. 1985
9. 前田雨城, [日本古代の色彩と染], 河出书房新社, 1975
10. 佐竹昭広, [古代日本語における色名の性格], 京都大学国語国文研究, 1955
11. 카가 와이삼 (Kagawalsamu) & 하세가와 (Hasegawa), [原色色彩語事典: 色の単語·色の熟語], 黎明書房, 1988
12. Ludwig Andreas Feuerbach(1848), [Das Wesen der Religion 宗教的本质], 王太庆 译, 人民出版社, 1999
13. Johannes Itten, [The Art of Color: The Subjective Experience and Objective Rationale of Color], John Wiley & Sons publish, 1974
14. (德) Wilhelm Worringer(1908), [Abstraction and empathy 抽象与移情], 王才勇 译, 2010, 金城出版社
15. 김문영,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한국전통색 활용',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6. <http://encykorea.aks.ac.kr>
17. <http://www.history.go.kr>
18. <http://www.mmca.go.kr>
19. <https://www.dpm.org.cn>
20. <http://web.kats.go.kr>
21. <http://www.qtccolor.com>
22. <https://ncscolour.com>